

# 세계 '축구 전쟁' 킥오프...경쟁 시작

전 세계 축구팬의 시선을 사로잡을 '충성 없는 축구 전쟁'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이 15일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러시아 월드컵은 15일(한국시간) 오전 0시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조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15일까지 32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이 네 팀씩 8개 조로 나뉘 조별리그를 벌이며 각 조 1, 2위가 16강에 올라 결승까지 녹아웃 방식(이긴 팀만 다음 경기에 진출)으로 우승국을 가린다.

세계 축구팬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건 7월 15일 오전 0시 개막전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질 결승전에서 어느 나라가 우승컵을 들어 올릴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정상을 오른 '전차군단' 독일이 대회 2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삼바 군단' 브라질과 '아트 사커' 프랑스, '무적함대' 스페인도 우승에 도전한다.

독일은 월드컵 유럽예선을 10전 전승으로 장식하면서 43골을 뽑은 반면 실점은 4골에 그치는 등 공격과 수비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독일은 주전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출

전한 작년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도 칠레와 멕시코 등을 따돌리고 우승했고, FIFA 랭킹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독일이 이번 월드컵까지 제패한다면 통산 5회 우승으로 브라질과 최다 우승 부문 타이거 된다.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은 4년 전 안방에서 개최된 월드컵 준결승에서 독일에 1-7 참패를 당했던 아픔을 딛고 6번째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브라질은 핵심 공격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부상에서 회복돼 대표팀 훈련에 합류했고, 호베르투 피르미누(리버풀)와 필리페 쿠틀라(바르셀로나), 가브리엘 제수스(맨체스터 시티) 등 화려한 공격진을 앞세워 명예 회복에 나선다.

또 유럽예선을 1위로 통과한 프랑스는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새로운 황금세대를 내세워 아트 사커의 부활을 노린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챔피언인 스페인 역시 빠른 패스를 통한 높은 점유율에 과감한 역습까지 가미해 8년 만의 정상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 독일 2연패·브라질·프랑스·스페인도 우승 후보 한국 두번째 원정 16강 도전...스웨덴과 1차전

마드리드)를 앞세워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를 제패한 포르투갈과 '축구의 신(神)'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도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맞붙는 B조 1차전(16일 오전 3시, 소치 피시트 스타디움)은 조별리그 최고의 빅매치로 꼽힌다.

전통강호들의 우승 경쟁 속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월드컵 도전 사상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타진한다.

1954년 스위스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열 번째이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은 원정 무대에서는 2010년 남아공 대회 16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다.

그러나 신태용호가 16강에 오르려면 험난한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한다.

F조 조별리그 상대가 우승 후보 독일과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 북유럽의

'복병' 스웨덴으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을 앞서기 때문이다.

신태용호는 불행 중 다행으로 대진표상 18일 스웨덴, 24일 멕시코, 27일 독일과 차례로 맞붙는다. 막강 전력을 보유한 독일과의 초반 대결을 피함으로써 1, 2차전에서 스웨덴과 멕시코를 상대로 '그라운드반란'을 노릴 수 있어서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맞붙는 '바이킹 군단' 스웨덴은 만만찮은 전력을 자랑한다.

FIFA 랭킹 24위인 스웨덴은 한국(FIFA 랭킹 57위)보다 33계단이 높다.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도 한국은 스웨덴과 네 번 싸워 2무 2패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스웨덴은 특히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네덜란드를 조 3위로 밀어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월드컵 4회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를 1승 1무로 일축하고 본선에 합류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순위표. A조부터 H조까지 32개 팀의 순위, 경기 결과, 득실점, 그리고 홈/어웨이 기록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스피드에서 다소 약점을 보이는 포백 라인의 장신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스웨덴전에서 첫 승리를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2차전에서 맞닥뜨리는 멕시코 역시 잡아줄 수 없는 상대다.

FIFA 랭킹 15위로 북중미 국가 중 가장 높고,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도 6승 2무 4패로 한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멕시코는 특히 앞선 여섯 번의 월드컵 본선에서 모두 16강에 올랐던 만큼 조

별리그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인 독일은 우승 후보다.

신태용호로선 스웨덴, 멕시코와 1, 2차전 대결에서 선전할 후 상승세를 타고 독일과 일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독일과 멕시코, 스웨덴을 상대로 2승 1패 또는 1승 2무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16강에 갈 수 있다. 1승 1무 1패를 올려도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연합뉴스

## 신태용호 '월드컵 첫판 무패' 이을까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조별리그 1차전 3승1무 F조 대진순서 그나마 최상



12일(현지시간)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뉴페테르호프호텔 주변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의 월드컵 도전 역사를 돌아볼 때 안방에서 '4강 진출 신화'를 창조했던 2002년 대회부터 유독 첫판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4차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거둔 성적은 3승 1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1차전 상대가 풀란트였다.

황선홍과 유상철의 연속골을 앞세운 한국은 2-0으로 승리해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준결승까지 오르는 세 역사를 썼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1차전 상대는 토고였다. 토고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이천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동점골과 안정환의 역전 골에 힘입어 2-1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1차전에서 맞붙은 그리스와의 대결 2-0 승리가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발판이 됐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첫 상대 러시아와 1-1로 비겼지만 이천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동점골과 안정환의 역전 골에 힘입어 2-1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1차전에서 맞붙은 그리스와의 대결 2-0 승리가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발판이 됐다.

조별리그 상대 중 비교적 약한 팀과 첫판에서 만난 대진 운이 따라졌지만

대표팀 전력을 1차전에 집중한 덕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신태용호가 묶인 F조가 '죽음의 조'에 가깝지만 대진 순서는 그나마 최상에 가깝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독일과는 최종 3차전에서 만난다. 그나마 세 팀 중 상대적

으로 약하다고 평가되는 스웨덴이 첫 상대가 된 건 불행 중 다행인 셈이다.

신태용 감독도 모든 역량을 스웨덴전에 맞춰 반드시 승리를 따낸다는 각오를 밝혔다.

열세인 한국이 스웨덴을 상대로 첫판 무패의 전통을 이어가며 '통쾌한 반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김국영 국내 무대에서 한국신 도전

17일 코리아오픈 남자 100m 출전

아시아 원정길에서 예열을 마친 김국영(27·광주시청)이 한국 트랙 위에서도 남자 100m 한국기록에 도전한다.

대한육상연맹은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전공설운동장에서 제4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2018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를 연다.

김국영은 17일 열리는 코리아오픈대회 남자 100m 경기에 나선다.

그는 지난해 6월 27일 코리아오픈대회에서 자신이 보유했던 한국 남자 100m 기록(전종 10초13)을 10초07로 단축했다.

9초대의 한국신기록과 아시아게임 메달을 목표로 2018시즌을 시작한 김국영은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고자 국내 대회가 아닌 국제대회에 나서며 아시아 상위랭커와 경쟁했다. 6월 3일 일본 돗



토리현 돗토리시에서 열린 후세 국제스프린트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는 10초22로 레이스를 마쳤고 결승전에서는 10초26을 기록했다. 순조롭게 원정 경기를 마친 김국영은 국내에서 기록 도전에 나선다.

여자 100m 허들 대표주자 정혜림(광주시청)도 이번 대회 주목할 선수다. 정혜림은 14일 KBS배, 17일 코리아오픈대회 등 두 차례 레이스를 펼친다.

한국 도약 간판 김덕현(광주시청)은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류현진, 부상 후 처음으로 불펜 투구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부상 후 처음으로 불펜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졌다.

MLB닷컴은 13일(한국시간) "류현진이 부상으로 이탈한 뒤 처음으로 불펜 마운드에 올라 투구했다"고 전하며 "애초 류현진은 올스타 휴식이 끝난 뒤에야 복귀할 것으로 보였지만, 복귀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

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힘을 쥐서 던진 건 아니었다. 아직 류현진의 복귀 시점을 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순조롭게 재할하는 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등판했으나 2회말 왼쪽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다.

/연합뉴스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결혼** ▲양동문(전 광주시립 미술관운영지원과장)·신부덕씨 장녀 서원양, 조공래·안순금씨 장남 성근군 = 16일(토) 오후 1시 30분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노진영(전남복지재단 이사장)·백희숙씨(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장남 재명군, 박희섭·장희경씨 장녀 소현양 = 23일(토) 낮 12시 30분 힐리데이션 호텔 3층 컨벤션 홀

**모집** ▲각화문화의집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 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각화동 480-41번지 265-9337.

▲청춘FC 토요축구회원모집=축구를 사랑하는 40~60대 모집. 토요일 오

후 2시30분동강대학교인구조장. 감독 010-2684-4490.

▲디자인 업체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숍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 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

▲배드민턴 강좌=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010-8835-7355

▲놀이마당 소리마당 사물놀이 동호회 회원 모집=매주 화·목 오후 7시 30분 010-4609-7463

▲습관성도박자·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및병원 위탁무료치료·성요한병원 (6개월 무료 입원·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527-3400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

스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주 간보호센터 385-042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면접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 3 대한법률구조공단광주지부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13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의료, 법률,심리치료 등 아동 성폭력 전담기관 232-1375

▲지역주민 정신건강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5개아파트단지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소 525-1195.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박춘재 님(69세)

호정씨(부친상), 정서익씨(빙부상), 15일(금) 8시. 장지:영락공원, 특실 7분향소

그린장례식장(주) 24시간 대기 062)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 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서주, 묘자 리 보주기 등 011-9602-00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모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 및 분만 혜택과 상담(임양, 양육) 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 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가시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한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 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 구지역자활센터 351-3029.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 형사 소송 이 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 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 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